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40cm 눈폭탄’ 내린 광주, 제설·포트홀·제설제 부족 ‘3중고’

그늘진 도로·중앙선·갓길 잔설로 곳곳 빙판
 두 차례 폭설로 제설제 소진...21.4%만 남아
 눈 녹은 자리에 포트홀...“인력·장비 총동원”

사흘간 최고 40cm의 폭설이 내린 광주 지역에 눈이 쌓였지만 제설제가 부족한 데다 포트홀까지 생기면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26일 광주 지역 도로 곳곳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40cm 내린 폭설 여파로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인 상태다. 주요 도로는 눈이 녹은 상태지만 여전히 이번 도로와 도로 중앙선에 가까운

한 차로는 눈에 묻혔다. 우회전 도로 갓길에 눈이 쌓여 차선이 좁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뒤엉키는 등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밀집돼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도로의 경우 여전히 빙판이 형성돼 있어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눈을 녹일 수 있는 제설제 등 장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기준 광주 시·5개 자치구의 제설제 잔량은 1742t이다. 종류 별로는 소금 136t, 친환경 제설제 219t, 염

화합수 159t 등이다. 올 겨울 시·자치구가 확보한 제설제는 총 8118t이다. 이날 17일부터 19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 2차례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제 6276t을 소진해 남은 제설제량은 21.45%에 불과하다.

눈을 치우는 굴삭기·제설제 살포기 등 장비도 광주시와 지자체가 보유한 58대 외에도 민간 장비 137대까지 동원했다.

눈이 녹은 길의 경우 ‘도로 위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포트홀(도로면 패임)로 몸살을 앓고 있

다. 눈이 내린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관련 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린 눈이 녹아 도로 홈에 스며들어 수축·팽창을 반복, 곳곳에 포트홀을 만들어 낸 탓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선 쪽 도로와 도로 갓길에 제설제를 뿌린 상태라 곧 눈이 녹을 것”이라며 “그러나 눈이 녹은 자리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어 여러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호기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왜 많나 했더니... “안전미흡 452건”

행안부·도로교통공, 60개소 점검 결과 공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60곳에서 안전 미흡사항 452건이 발견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12~18일 실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60곳에 대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30곳,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곳, 노인보행구역 지정이 필요한 10곳 등 60곳이다. 65세 이상 유동인구와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이 601명(59%)에 달했다.

60곳에서 총 452건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

도로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개선과 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와 차량 과속 등이 121건(26.8%)으로 각각 최다였다.

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369건(81.6%)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주민·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83건(18.4%)은 순차 정비하도록 했다. 시설 개선 과정에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노인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미쓰비시 배상책임, 일본이 져야한다’

26일 오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세일경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안한 배상 책임 대안을 비판하고 있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국제생태관광 가치 인정

완도군은 26일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와 완도군이 최근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2022 GSTC(국제생태관광 어워드)’에서 파이널리스트상 수상에 성공한 3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제생태관광 어워드’는 아시아생태관광협회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온 주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상이다.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와 완도군은 청산도의 천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논의 보전·관리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아 3개 부문(커뮤니티 혜택, 생태관광의 혁신, 커뮤니티 챔피언)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아시아생태관광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총 10개 분야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으며 파이널리스트상 시상과 최종 우승자 발표는 내년 3월 말 필리핀 실랑에서 열리는 국제생태관광박람회에서 진행된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독특한 관개 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2014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2021년 세계관광시설물 유산 등에 등재돼 있다.

한편 아시아생태관광협회는 지난 2015년 설립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22개국 생태관광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